

“목포·광양 해양관광형 국제자유도시로”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원 보고서

전남 섬·해안선 활용 ‘U자형’ 경제벨트 완성

유커 흡수하고 동아시아 경제주도권 확보해야

목포와 광양을 항공부품산업 및 신해양 산업 등 융복합 거점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해 중국 3대 경제권역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섬과 해안선 등 지역 특유자원을 활용한 ‘U자형’ 대외개발 경제벨트를 완성해 급증하는 중국관광객을 흡수하고 선도적으로 서비스 부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문 ‘광전 리더스 인포’의 보고서 ‘목포·광양, 국제자유도시 지정 필요성 및 개발 방향’을 통해 지역의 전략적인 육성산업과 연계한 지식경제의 발전거점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지정·개발을 강조했다.

국제자유도시시는 수입관세의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한 자유무역의 실시,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국제금융활동의 자유보장 등 국제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이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은 이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토연안축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및 경제활동의 개방화, 자유화에 대응한 개방형 투자거점인 국제자유도시의 지정·개발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글로벌 투자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하면서 주장 삼각주, 창장 삼각주, 징진지 등 중국 3대 경제권역 및 환황해경제권(인천-황해-새만금·군산-목포·광양), 남해안경제권(부산-진해-광양·목포) 등 결정 지역을 개발해 개방형 국도축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항공물류 등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하고, IT 등 첨단지식산업·교육·연구개발 등이 복합된 형태로, 광양은 수산업 관련 해양식품, 해양기기·장비산업 연계 제조산업, 해양관광, 해양·항만 물류산업 등 해양산업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세계 각국은 국제자유도시 육성에 눈을 돌리며, 경제권의 주권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특구제도를 활용하고, 지역별·산업별 집적도를 고려한 국제자유도시 지정·개발을 통해 21세기 동아시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8월 첫 주 휴가” 46%...30~31일 도로혼잡 극심

국도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올여름 휴가객의 46%가 몰려 이동 인원이 평상시 대비 41.1% 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1일까지 이틀간 고속도로 혼잡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

다.

다만 고속도로 동해선 울산~포항 등 4개 구간과 일반국도 34개 구간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조성수기만 피하면 작년 여름보다는 편안한 휴가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사이렌 울리며 도로 질주 긴급차에 범칙금

무단으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를 질주하는 긴급차량에 대해 4만원~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위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이나 순찰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앞으로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 소유자 80% 동의면 재건축

건축물이 훼손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해당 건물·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지분의 80%만 동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도교통부는 지난 1월과 2월 개정된 건축법 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바뀐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일부) 규정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차 만드는 ‘제다’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단체는 인정 안해

차(茶)를 만드는 기법인 ‘제다(製茶)’가 우리나라 두번째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9일 ‘제다’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차 뒤는 과정.

‘제다’는 차나무 싹, 잎, 어린줄기 등을 찌거나 덪거나 발효를 거쳐 압착, 건조 등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전통기술을 의미한다.

차 산지가 집중된 보성, 구례, 경남 하동 등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종목만 지정하고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다’는 삼국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초의선사가 저술한 ‘동다송’, ‘다신전’ 등 서적이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

또 차 제조기술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돼 널리 통용되고 있다. 특히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금남로서 물총 한번 쏘 볼까”



지난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마지막 주말 금남로에서 ‘광주 물총축제’가 열린 가운데 축제참가자들이 물총을 쏘며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3일 오후 1시 광주물총축제

워터존·포토존 등 행사 다채

2016 광주물총축제가 23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1~3가 ‘차 없는 거리’에서 펼쳐진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사장은 가족이 즐기는 ‘패밀리존’, 물총놀이·수수(水秀)한 파티·공연 등이 펼쳐지는 ‘워터존’, 광주를 알리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광주존’, 물총패션을 뽐내는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청년문화관’은 물총 축제를 마치고 광주 서구로부터 지원받은 유용미생물 발효액을 활용해 금남로 거리 하수구에서 악취 제거, 수질 개선 등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300여명과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현장에서 배치된다. 또 물총, 방수팩, 타일 등 용품은 ‘패키지존’에서 구매할 수 있고 탈의실 등도 마련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합의 반발·소녀상 문제 갈등 속

‘화해·치유재단’ 내주 공식 출범한다

재단설립 준비위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7월중 재단 출범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다음 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단출범 일자는 다음 주 후반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 7개월 만에, 또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현)가 출범한 지 약 2달 만이다.

준비위는 그동안 정관 확정은 물론 재단 명칭을 ‘화해·치유재단’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금명간 여성가족부에 공식적으로 재단설립 신청을 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또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 30여평 규모의 재단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이사장은 여성인 김태현 준비위원

장이 맡을 예정이며, 나머지 10명의 준비위원은 재단 이사진으로 포진한다. 준비위는 역사학계나 국제법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명의 추가 이사 선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일본이 재단에 10억엔을 언제 출연할지가 주목된

다. 지난해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예산으로 10억엔을 거출,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 여론이 여전히 강하고, 한일 양국 간에도 소녀상 문제와 향후 재단의 사업 방향 등을 놓고 갈등할 소지가 많아 재단 출범 이후에도 위안부 합의 이행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 특징

돈보고 세금까지 짚어주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투자 물권위주로 강의!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6. 7. 18(월) ~ 2016. 9. 9(금)
·수업기간 : 2016. 9. 8 ~ 2016. 12. 8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2:00 / 19:00~21:00
·수강료 :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gelong
·접수문의 : 062)230-7700~2 /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가치가 18억원

- 화산군 도암면 대지498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현목전 건축가능 ▶감정가 6천1백만원 최저가 4천5백만원
- 나주시 경현동 대지84평 포장도로접자연녹지지역 동신대인근 주변환경 양호 평당 339원 ▶감정가 3천2백 최저가 3천2백만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감정가에56%)
- 북구 중흥동 광주역 8차선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큰도로변 우리은행옆 3층상가250평 토지 17평 병원 사옥 상가부지 ▶감정가 2억3천 최저가 15억원
-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건너편 대로변접 지하 1층~지상 3층 근린시설 100평 토지 100평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7억원
- 전남 보성군 인로잇은 편백및 삼나무식재림 투자가치우수 ▶감정가 5천4백만원 최저가 3천8백만원
- 북구 용봉동 4층중 3층복합상가 건물 30평 토지 18평 사무실부지 ▶감정가 1억2천5백만원 최저가 3천7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이사
010-7147-4989

아직까지 몰랐던 최고의 투자처!!!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무엇일까?
안전성 + 수익성 + 현금성의 3박자를 갖춘 부동산은 무엇일까?
개인별 맞춤 투자로 토지투자의 성공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부동산투자 성공전략 무료세미나

강의 내용

- ◆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의 기준
- ◆ 대외 변수에 의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화
- ◆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망
- ◆ 토지 투자 유망지역과 투자포인트 공개
- ◆ 국가 정책이 토지개발에 미치는 영향
- ◆ 안전성을 확보한 노른자 투자 유망지 소개

강사

- ◆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 ◆ 현지 실전 전문가

일시 : 7월 22일(금) 1부 : 오후 2시~4시 / 2부 : 오후 7시~9시
장소 : 광주시 남구 월산로 154 가람빌딩 9층 (돌고개역)

부동산토지재테크 상담소
예약전화 ☎ 062)576-7955